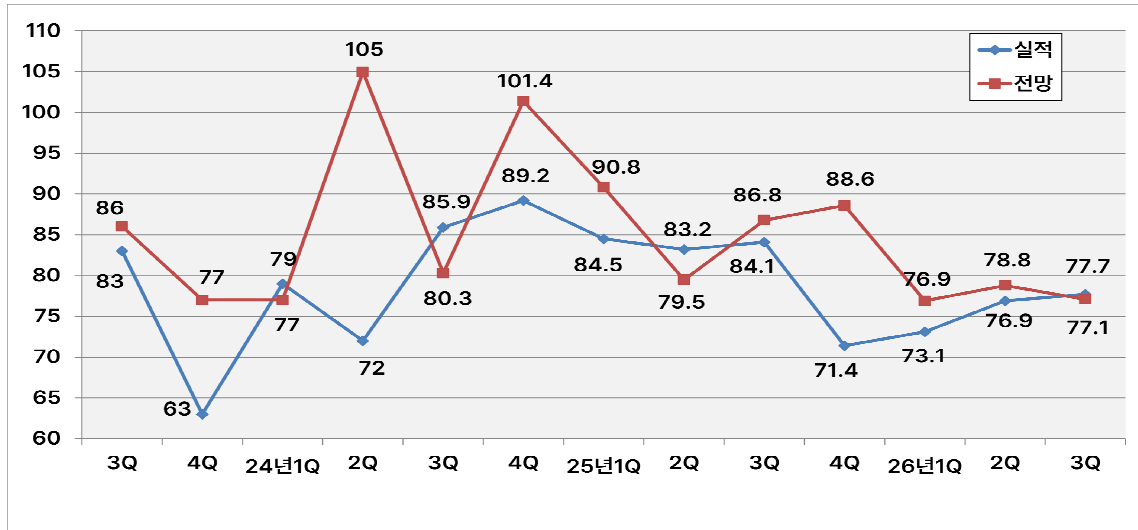


제 목 : 2026년 3분기 시흥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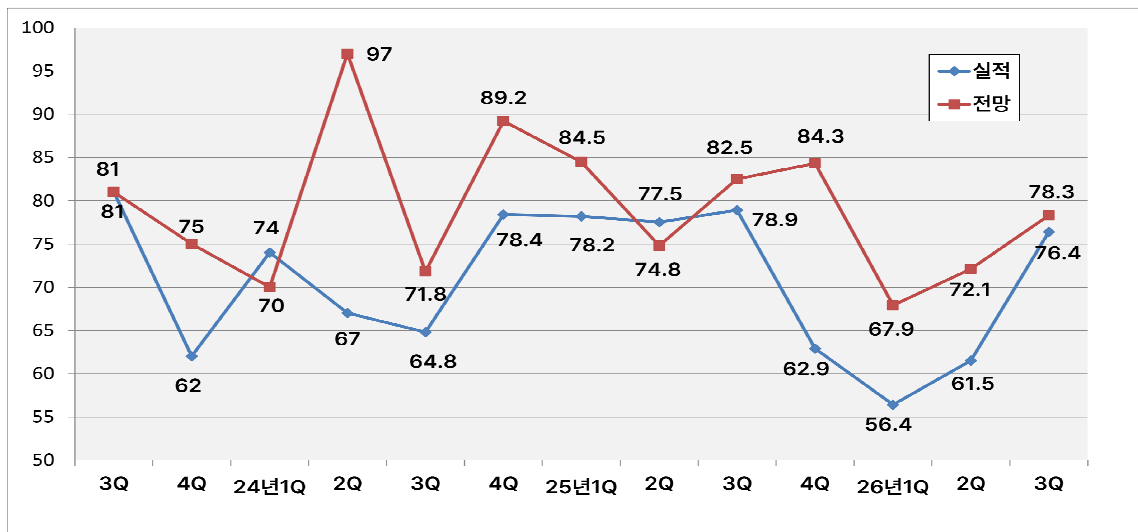
매출액을 살펴보면, 매출액 전망지수는 77.1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매출액 실적지수는 77.7로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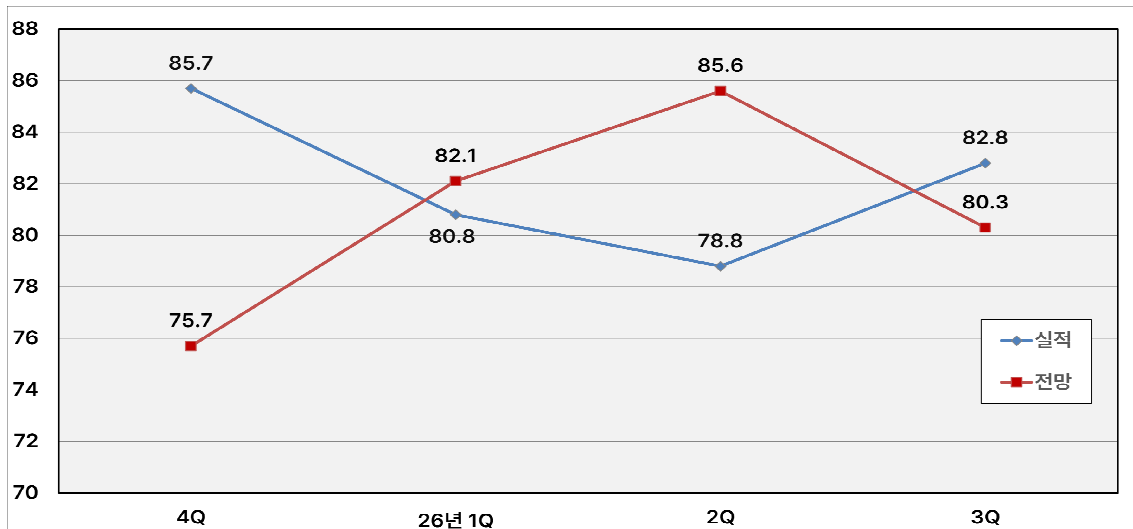
영업이익의 경우, 전망지수는 78.3으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실적지수는 76.4로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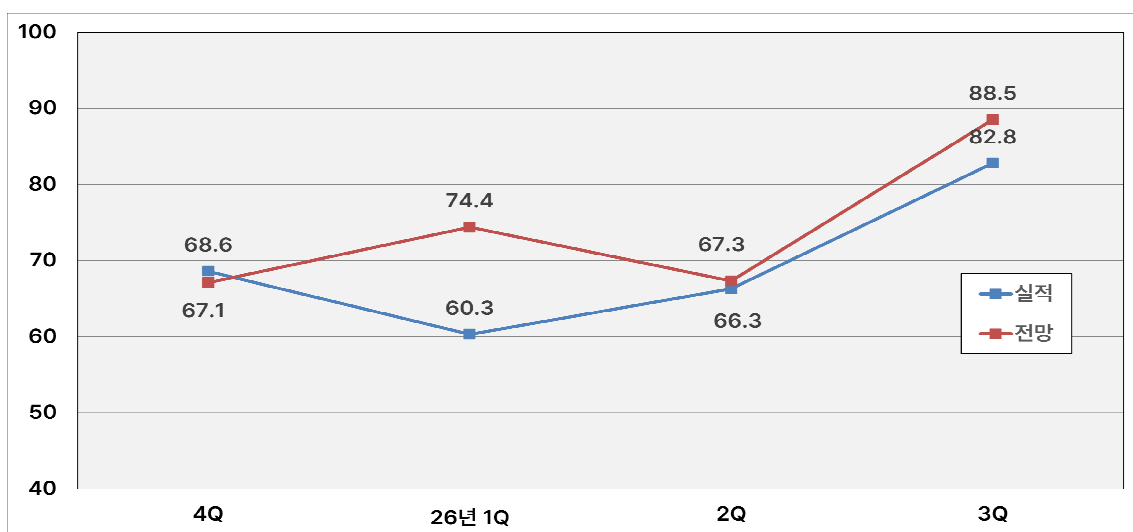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전망지수 80.3으로 집계되어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실적지수 82.8로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지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해 설비투자 여건은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분기별 설비투자 추이>



자금사정은 전망지수 88.5, 실적지수 82.8로 집계되어 각각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두 지표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해 자금사정은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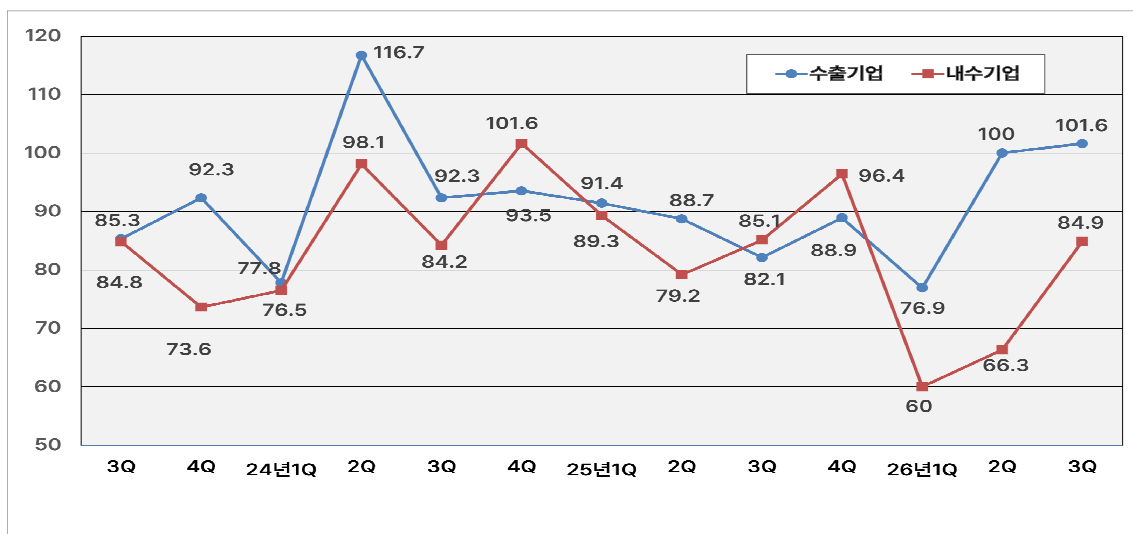
<분기별 자금사정 추이>



기업규모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2026년 3분기 전체 경기전망지수는 91.7로 집계되어 기준치(100)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1~49명 규모는 86.4, 50~299명 규모는 86.6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수준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100~299명 기업이 91.9로 중소기업 중 가장 높았으며, 50~99명 기업은 8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은 137.5로 기준치를 크게 상회해 중소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였다.

수출·내수 여부에 따른 조사 결과, 2026년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101.6으로 집계되어 전분기(100.0)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준치(10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기업은 84.9로 전분기(66.3) 대비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해 경기 회복 기대가 제한적인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내수기업 전망치 추이>



업종별 경기전망을 보면, 기계·장비 업종의 2026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1.8로 나타나 전분기(94.7)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전망은 여전히 신중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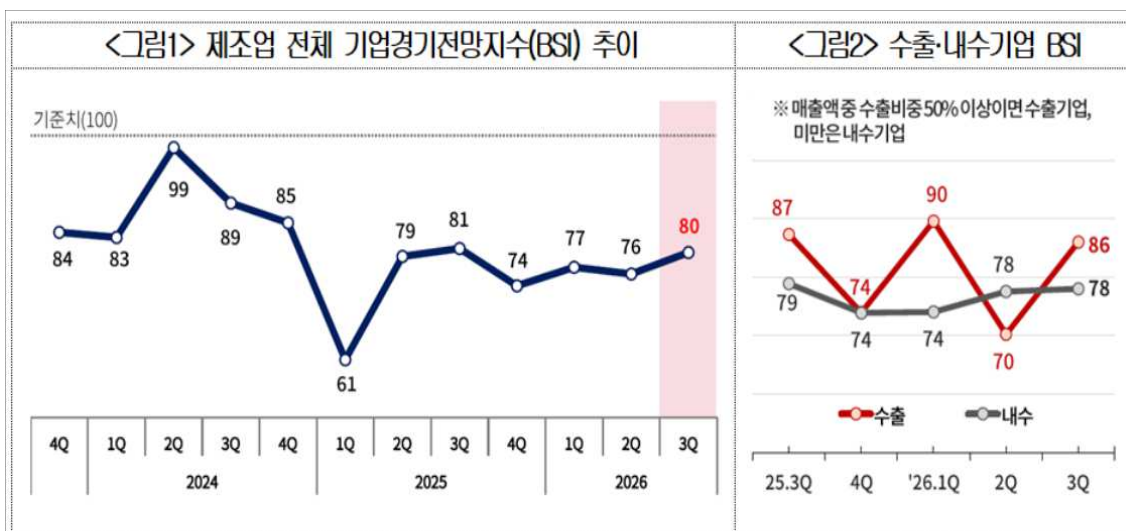
철강 업종의 경기전망지수는 112.5로 조사되어 전분기(71.4)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준치(100)를 상회해 주요 업종 가운데 비교적 긍정적인 경기 전망을 보였다.

전자제품통신 업종의 경우, 경기전망지수는 137.5로 조사되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업종별 지수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자동차·부품 업종의 2026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는 89.3으로 조사되어 전분기(41.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해 경기 회복 기대는 아직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7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전국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0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직전 분기 전망치인 76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2021년 3분기 이후 20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하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조사에서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6으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증가했고, 내수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78로 전분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기업경기 실적 및 전망지수 추이(전국)>



<끝>